

Facebook

볼매꾼

twitter :

mullgil2014

mullgil2014@
gmail.com



물길

볼매꾼

총화자료집

학내에 흩어진
여성주의자들을 찾는
물길 5기
- 외모품평문화바꾸기

동국대 총학생회 불비 / 숭실대총학생회
다락 / 한양대총학생회 도담 /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 개인단위 오봉과 니모와
세러와 물감 . 그리고 한국 여성민주회

예쁘지
고장치지



물길5기

너를
사랑
한다

이런
이름

I AM
WHAT
I AM

얹아도
얹아도
얹아도
얹아도

28대 미국 총대행
6월 10일 외무부장관의

28대 미국 총대행 5월 10일 '불수'를 해

매력있

를 덜어내고 밀고
아름다운 삶이
아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21세기

끈

산지는 것이
조는 하나

총화자료집

먹어도
괜찮아



아름다움은 무엇

외모로 판단하지



5.12 ~ 5.23

동국대총여학생회

천편일률적 외모평가기준이 인식에 얼마나 박혀있고 폭력적인지 문제제기하는 활동 / 볼매곤스티커와 부채 나누기, '미쓰홍당무' 감상회

6.9 ~ 6.21

숭실대 총여학생회 다락 - 외모지상주의타파주간

'먹으니깐 아름다다' 간식사업

아름답지않아도 아름다운당신을 위한 매니지-현수막 외모격정후개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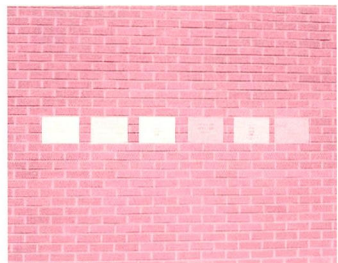
6.16 ~ 7.1

가톨릭대학교

그대로도 아름다운 나를 긍정하기 위해 학내 거울에

미니자보 부착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나'들과 함께한 시간!



9.10 ~ 9.12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도담 -

개강사업의 일환으로 볼매곤스티커를 붙인 음료 배봉 및 플래카드게시로 학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9.18

새러 & 두런두런 <장소: 가톨릭대학교>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반복되는 외모평평.

얼마나 자주, 많이 일상적으로 외모에 관한 말을 할까요?

나의 외모평가 지수를 진단 할 수 있는 '외모 평가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 인턴 등 취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외모와 관련된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현장 외모요구사항 실태조사'

외모평평 문화를 바꾸기 위한 스티커 배부도 함께 진행됐다



9.29

설문 대상자 상대로심층인터뷰 진행

[볼.겉 :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는?

한국여성민우회의 20대 여성주의자 임파워링 프로젝트.

2009년 '페미블로거캠프',

2010년 1기 '물꼬 트는 사람들',

2011년 2기 '멘토링캠프 - 어떤 여성주의자로 살아갈까',

2012년 3기 '학내 여성주의 모임 인큐베이팅',

2013년 4기 네트워크캠프 및 '물길, 강물이 된다' 등을 호르고 거쳐

2014년 5기를 맞이한 연속사업입니다. 학내에 흩어져 있는 여성주의자 개인 및 단위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봄이면 [볼.겉] 잠재참가자를 찾는 담당활동가의 눈이 반짝일 테니 곳곳에 흩어진 20대 여성주의자 여러분은 [볼.겉]을 기억해주시길!

[볼.겉 5기 - 볼수록 매력있곤!]

볼.겉 5기의 활동주제는 보다 선명합니다. '외모관리'와 대학생들의 점점에 주목해 학내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기로 한 것. 취업준비와 자기관리라는 명목 하에 성별연령을 막론하고 점점 과하게 우리 일상에 개입하고 있는 외모주의의 압박을 학내 캠페인 활동으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책갈피스티커 캠페인, 취업현장에서의 외모요구사항 실태조사를 통해 학내 만연한 외모평평문화의 실상을 드러내고 더 많은 학생들과 공감, 지혜를 나누고자 - 동국대 총여학생회 볼비 / 숭실대총여학생회 다락 / 한양대총여학생회 도담 /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 개인단위 오봉과 니모와 새러와 물갈 . 그리고 한국 여성민우회 - 가 2014년 4월 볼.겉 5기의 이름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볼매곤의 SNS활동]

4월부터 시작된 볼매곤의 활동! 6월부터는 볼매곤만의 SNS계정을 통해 활동 소식을 온라인으로도 알려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페이지 좋아요 수가 435개에 도달! 읽은수가 1000명을 훌쩍 넘는 게시물도 있을 정도! 볼매곤에 참여하는 단위 및 개인들의 캠페인 내용 외에도 뉴스, 칼럼, 웹툰 등 외모관리에 관해 함께 읽어 볼 만한 콘텐츠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했습니다. 20대 페친, 트친 뿐 아니라 몇몇 언론, 비영리단체에서도 볼매곤 활동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은 역시 온라인의 힘인가봄가



10.13~10.14

숭실대 총여학생회 다락
외모평평가습지 야광팔찌 배부
진정 아름다운 나를 찾는
보물찾기 사업을 진행



10.17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도담
외모평평문화에 관한 스티커
설문 및 송판개기를 통해 외모평평문화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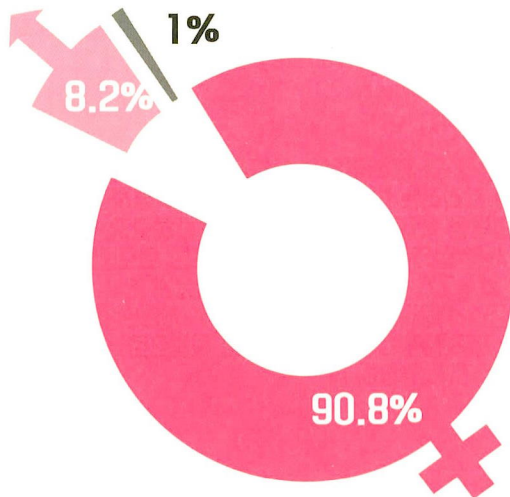
11월 중순 예정
두런두런
거리캠페인진행
외모평가설문
헛소리격파
자기자랑하기 등

동덕여대
여성주의 주간 진행

10.30 볼.매.곤 활동 발표회 - NPO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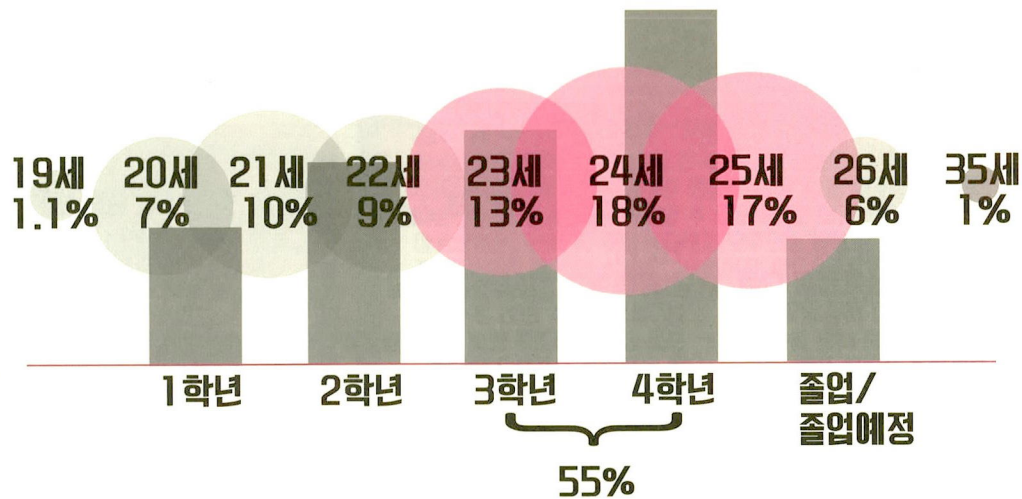
〈설문자 정보〉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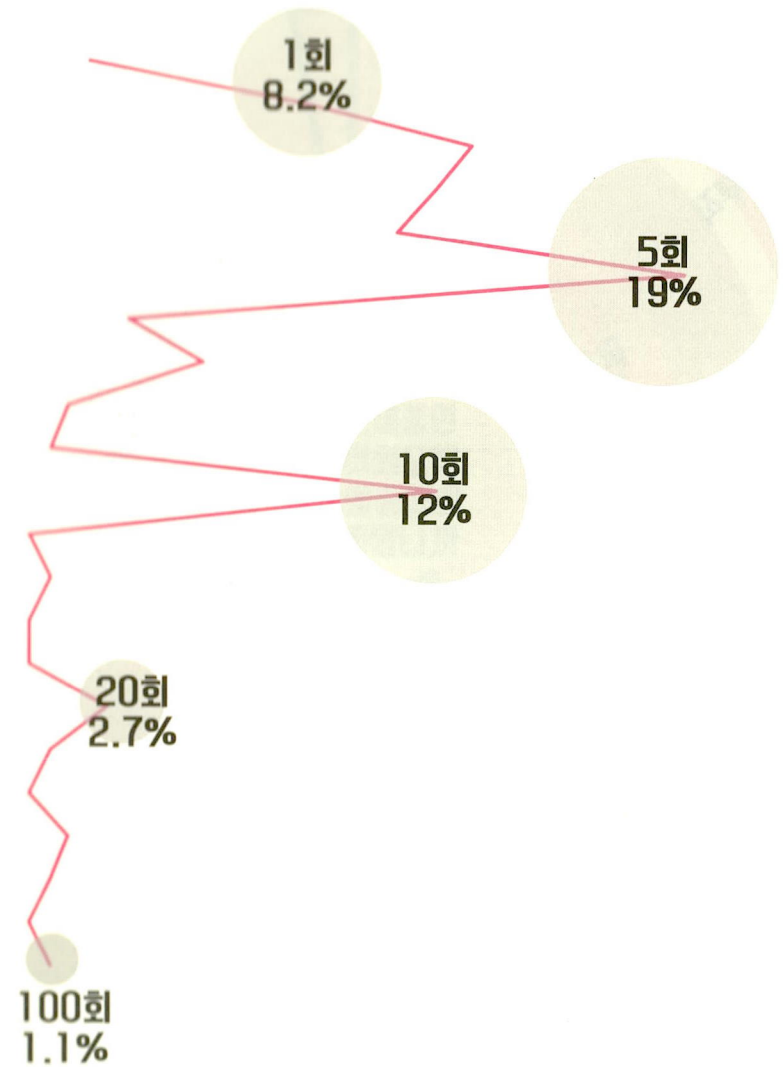


설문기간 2014.6.30~9.30
총 응답자수 195명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설문 진행
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볼매곤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2. 나이 /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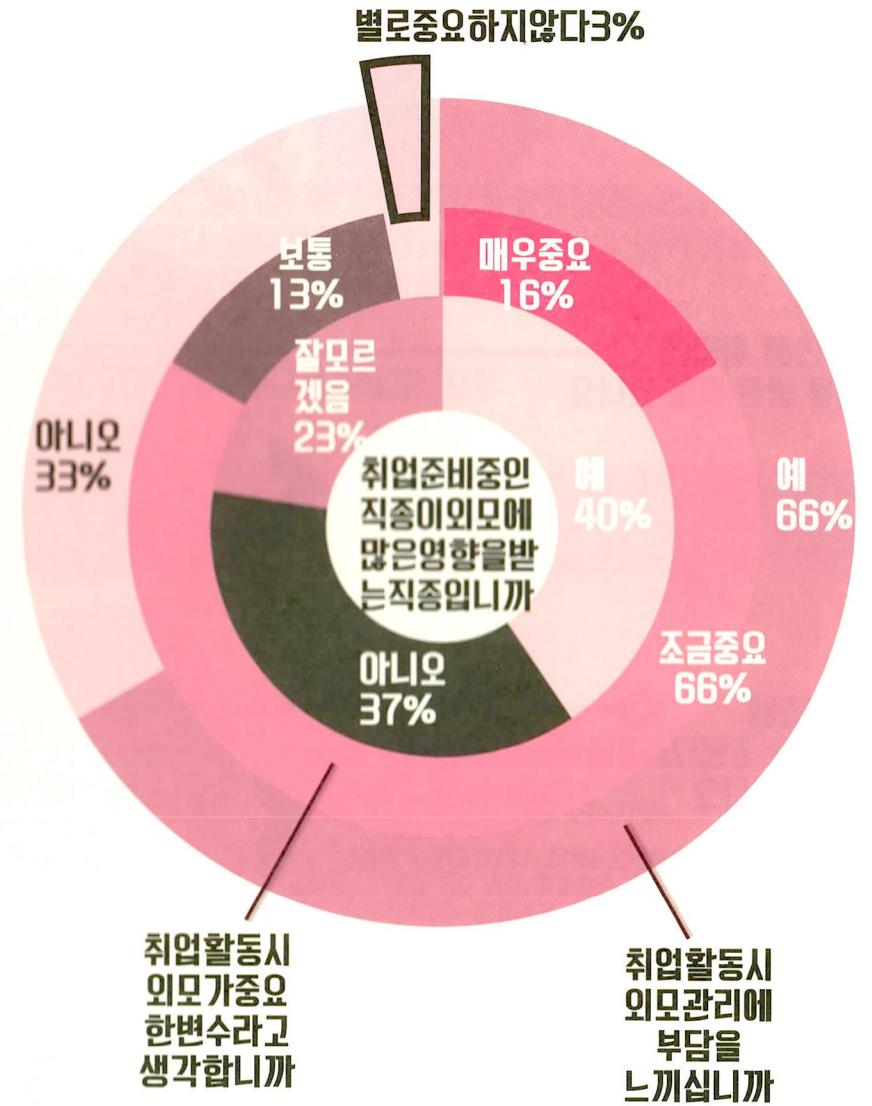
3. 취업 면접 응시횟수



4. 취업준비경험분야 / 경험기업



〈조사내용〉



면접과정중에 면접관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지적)을
받은일이 있나요

51%

48%

외모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86.7%

13%

취업준비중에
외모에대한 조언(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요

48%

52%

기업마다 선호하는
인상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69%

31%

있다고 답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파보이니입술좀발라라. 생각했던것보다키가작네요.
기자할성격이아닌것같은데?ㅋㅋㅋㅋ.
여성스럽지않으시네요.너무똥똥하신것같아요.(똥똥한걸보니)자기관리를
잘못하는것같네요.상큼한인상이아니시네요(그리고질문이없었다).
면접에떨어졌는데다시전화와서"양심이있으면성형이라도하고살아라"
벌레를달았다고하루일하고잘렸다
일못하게생겼네.청소를못하게생겼다.셀카좀보내주세요.
취업이되지않았다.떨어졌다.채용되지않았습니다.탈락했습니다.고용되지
않았습니다.면접탈락 누 누 알바잘림

있다고 답한 경우 누구로부터었나요?

57.8%가까운지인(친구선배친
척부모등)

9%교수및학
교관계자
19%대중
매체
14%취업상담

있다고 답한 경우 어떤정보인가요?

항공 다리 각선미를 보고, 특정회사가 좋아하는 다리라인. 아시아나는 참하고 이쁜 이미지. 대한항공은
새련된 이미지. 단아한상 대한항공은 단아한상 아시아나는 화려한 이목구비의 여성, 대한항공은
선한 이미지. 아시아나는 도회적이미지. 제주항공은 동글동글한 이미지.

아나운서 수수하면서 지적인, 호감형이거나 몸매가 날씬하다거나, 탈색문신피어싱을 하면 기피한다는 정보,
코 높고 눈 커야 할 무조건 수술해야, 단정한 외모 필요, 똥똥하면 마이너스라는 정보,방송국별로
단정하거나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하는 선호하는 생김새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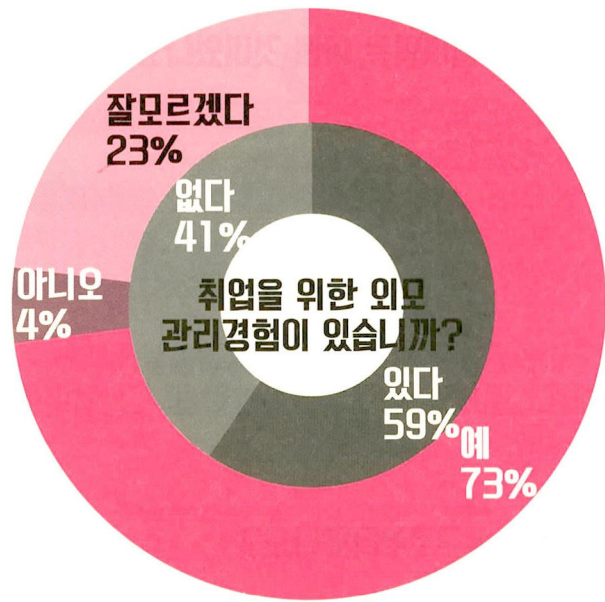
삼성 비지니스맨의 정석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아나운서적인 외모를 많이 본다. 관상을 중요시한다.
삼성은 드세보이지 않고 순하지만 성실한 인상을 선호한다고 들었음, 삼성형 얼굴 에스케이형 얼굴
엘지형 얼굴 현대형 얼굴이 다 따로있어서 면접 때마다 다르게 준비한다

현대 키가크고 이쁘게 생긴 사람좋아한다고..

금융권 신뢰감가는 인상, 신한은행의 경우 형제가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안된다. 다른직종보다 꼼꼼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험을 들음. 반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앞머리가 있으면 안된다. 금융계는 아나운서 이미지를
선호한다. 사진 배경으로 파란색을 선호한다

패션 업종특성상 피팅모델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매가 좋아야 한다 키165이상 55사이즈

아이티 여자사원이 너무 예쁘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뽑지 않는다



외모관리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었거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의 경험 여부와 기간,
총비용을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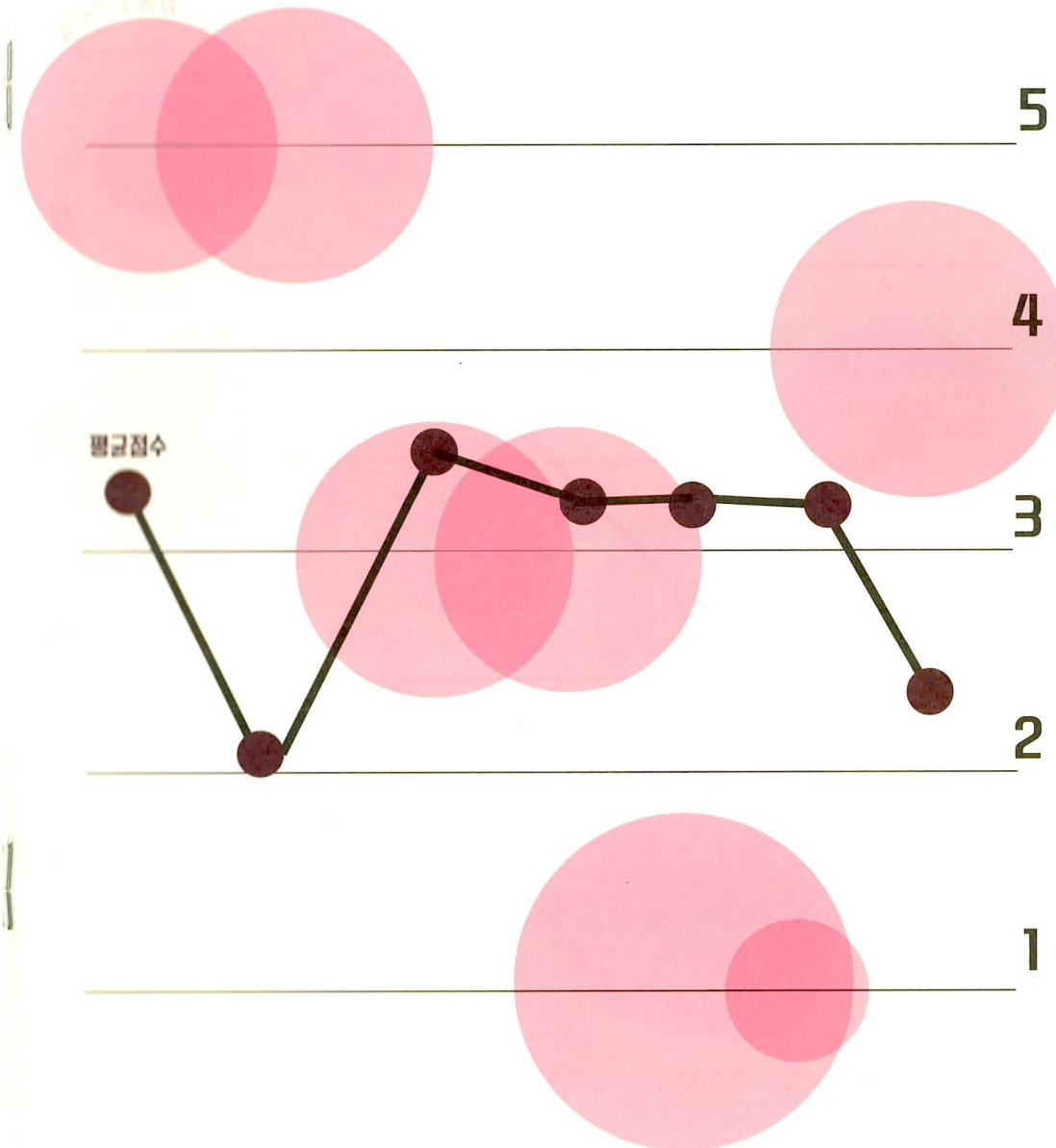
경험 여부

다이어트 의복구매 피부관리 화장 헤어 성형 운동/교정 사진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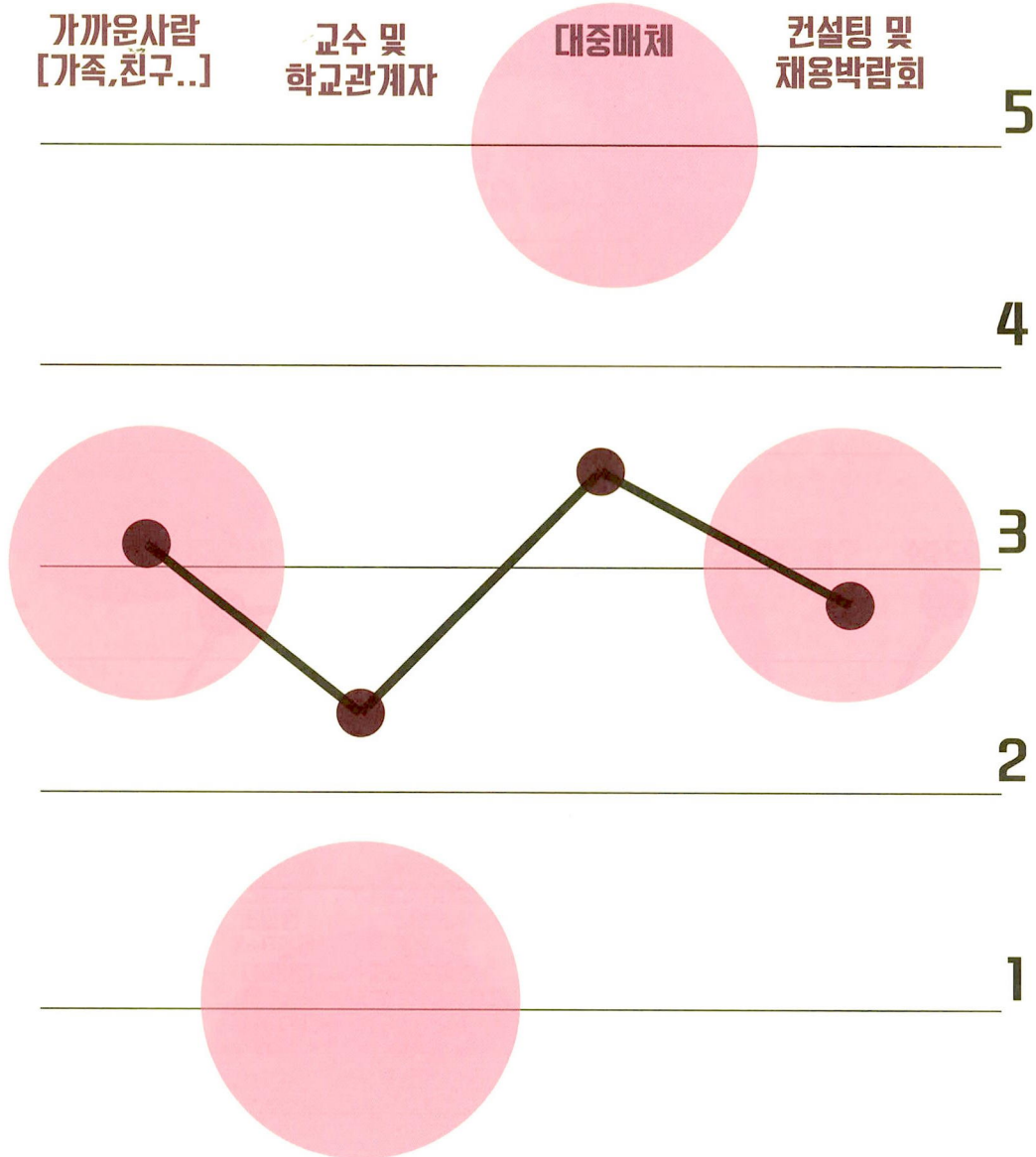
연간30만원	2~3만원	1달5만원	30분	80만원	수영 30만원	1.5만원
2~3일	5만원	1달3.4만원	1만5천원	80만원	요가4개월	2만원
2~3주	6만원	5만원	1시간2만원	200만원	PT3개월	3만원
3개월	7~8만원	1회5만원	3만원	300만원	120만원	3만원
5개월반	10만원	1달10만원	5만원	2~3년		3만원
6개월	10만원	6개월15만원	6만원	300만원		3.5만원
6개월	10만원	경락20만원	8만원			4만원
1달10만원	10만원 x 10..	5개월50만원	8만원			5만원
1년48만원	15만원	6개월90만원	8만원			5만원
2개월30만원	15만원	1년100만원	10만원			5만원
두달30만원	20만원	140만원	10만원			5만원
3개월40만원	20만원 x 5..	평소에계속	10만원			6만원
년간260만원	25만원	영원히	15만원			6.5만원
월30만원	30만원x2		20만원			7만원
3개월120만원	40만원x3		매달 20만			8만원
평생	50만원x2					10만원
365일	70만원					10만원
해도해도끝이없어	100만원					10만원

각각의 항목에서 스트레스 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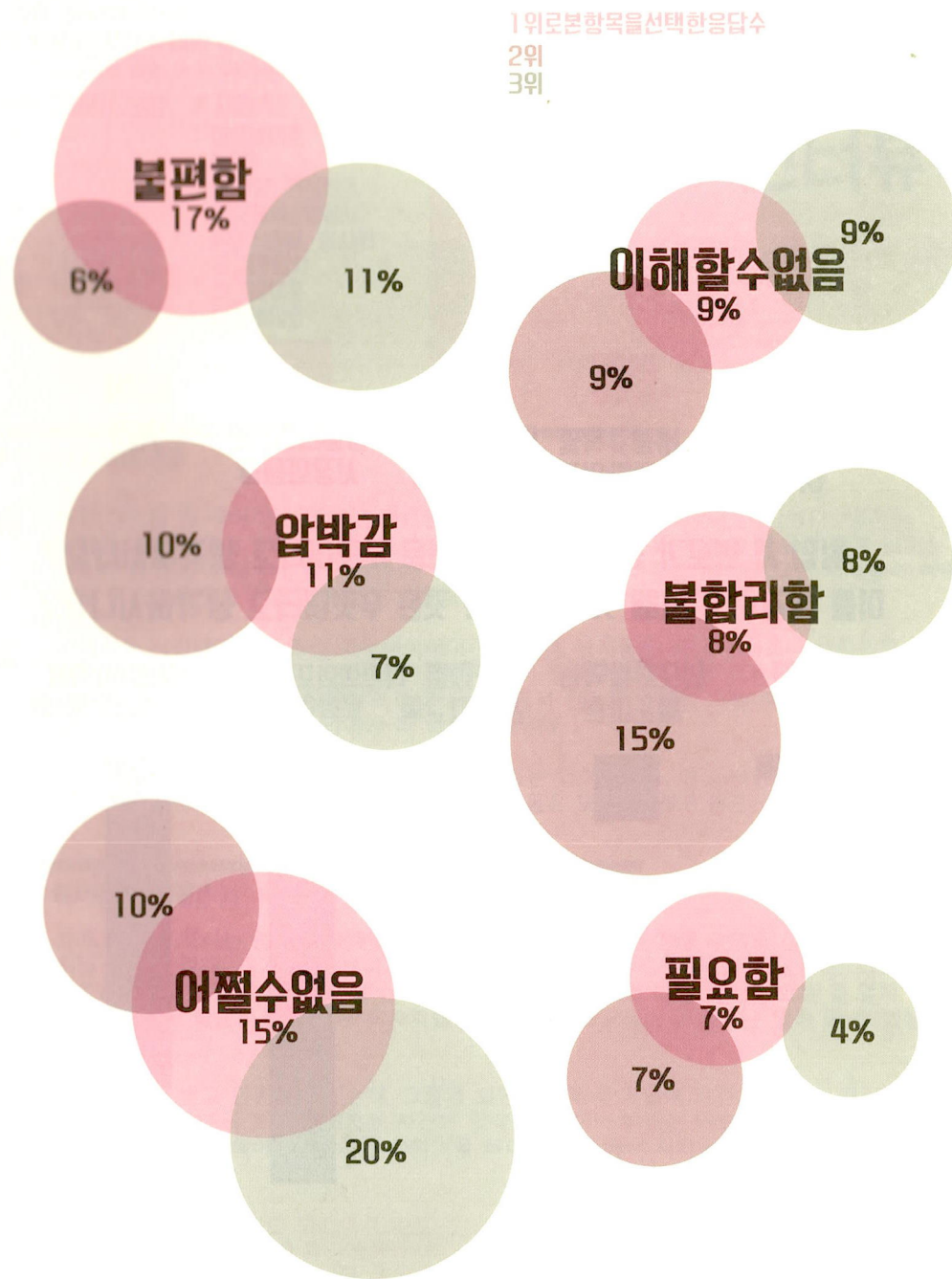
다이어트 의복구매 피부관리 화장 성형 운동/교정 사진촬영



취업시 외모고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표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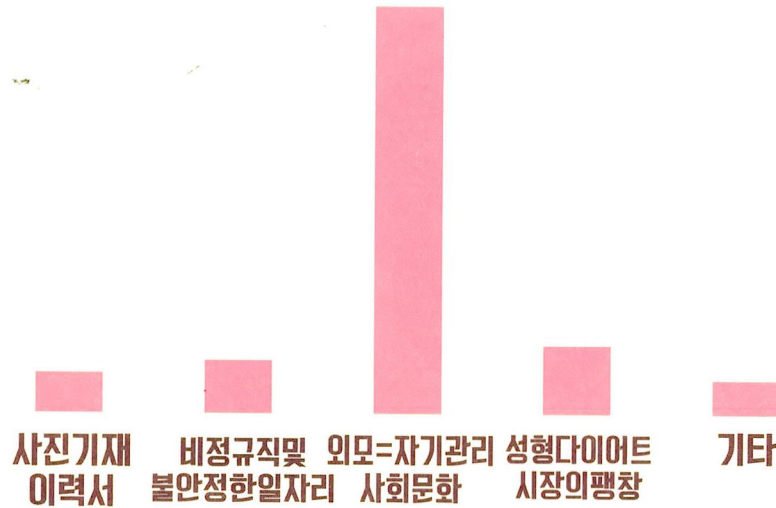
취업활동 시 외모 관리에 대한 것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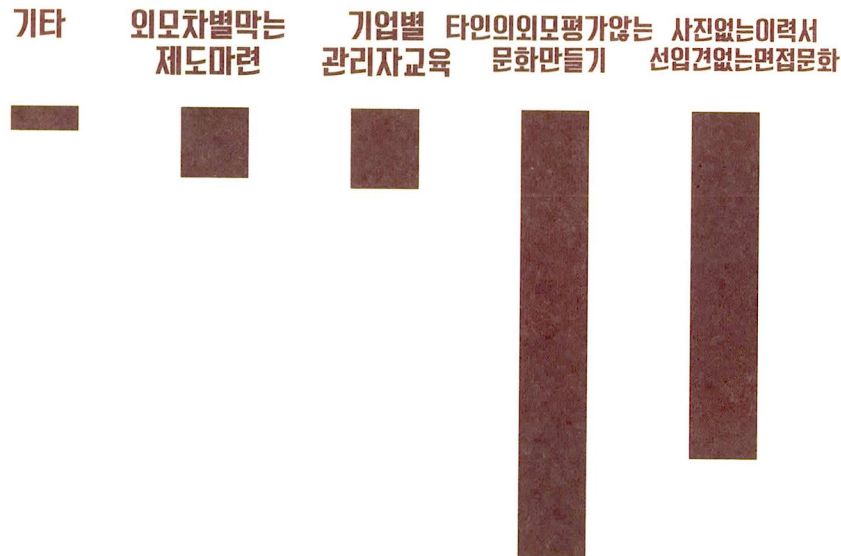
취업현장 외모실태 조사심층 인터뷰

{ 20대 청년여성들과 함께 취업준비 중 외모와 관련한 취업시장에서의 요구사항과 부담감을 듣기 위한 인터뷰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이 인터뷰에 참석하였으며, 과정에서 취업 외모요구사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느끼는 감정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대상자<가명> / 지원분야
진혜 아르바이트
피누 NGO
기질 마케팅, 컨설턴트
지혜 아나운서, 항공사
은동 취업1년째, 회사원
영수 광고대행사
시내 아르바이트
연지 아르바이트



취업 시 외모가 중요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이상하고 뻥센 기준

진혜 취업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한 명씩 지적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하고, 5cm는 너무 높고, 구두는 광택이 없는 구두, 치마는 무릎이 살짝 보이는 정도의 길이'라며 내 복장을 지적했다. 그땐 한창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라 그런 지적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신경이 너무 쓰였다.

기질 금융권은 사진배경이 무조건 파란색이어야 한다거나, 남자들은 파란색 셔츠나 넥타이를 매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정장도 면접용 정장이 정해져 있다. 안에 입는 블라우스도 디자인이 세 종류 정도로 정해져있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든 소재도 거의 똑같다. 민자, 레이스 달린 거, 셔츠형 이 세 종류 안에서 다 결정이 나는데.

영수 생리기간에 면접 보러 가는데 에이치라인 스커트는 입어야되고. 이 스커트는 착 달라붙으니까 패드를 안보이게 하려고 처음 탐폰을 썼다. 근데 몸은 또 더 낯설고 몸은 더 힘들었다.

여자면똥 여자아닌 여자같은 너

지혜 전공 수업을 하시는 좀 높은 직위의 교수님의 수업에서 4학년 전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취업 하려면 절대 '여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남자애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라고 말씀하시더니, "구두는 3cm 이상 신지 말아라. 또각또각 소리 나면 여자가 오는 걸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여자처럼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성별은 알려 줄 수 있는..

은동 제가 학점을 받고 인턴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기업에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다. '복장이나 머리는 미묘하게 여자처럼 보이면서도 일은 남자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도 (취업컨설팅이나) 비슷하다.

여자로써 보여야 하지만 여자여서 만은 안 되는, 긴 듯 아닌듯한 애매한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황당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꽃이든, 돌이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들고 스트레스도 높고 일석이조! 잇헐!

지혜 나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심했다. 매번 승무원 면접을 보러 가면 적어도 20만원씩 깨진다. 메이크업과 헤어뿐만 아니다. 옷도 승무원 복장을 파는 곳이 은밀하게 있어서 승무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유니폼 같은 것을 파는데 '구두는 소가죽 구두를 신어야하고, 치마는 일일이 다 물레를 재고, 가슴이 너무 빈약해 보이니 이것을 가리는 리본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시계도 사야하고, 귀걸이도 사고. 이것들이 다 면접 볼 때의 기본 아이템이다.

피누 그런' 면접 복장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서만 준비하는 건데 기본이 2-30만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애길 들으니 괜히 졸업할 때 부담스럽더라.

지혜 면접 시즌 되면 메이크업 예약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샵에 가야하고, 외항사(외국 항공사)는 매번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한다. 전신, 반신, 증명사진 등등인데 이런 걸 매번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한다. 이런 건 찍을 때마다 15만원 정도 든다.

영수 비용은 정장 한 벌 삼십만원 하고, 치아 화이트닝 십만원 받고. 점 빼고 그랬다. 오십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다.

진혜 나는 정장을 하복, 동복, 춘추복 다 사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와이셔츠를 샀는데 여자는 블라우스를 사야 한다고 했다. 또 처음엔 바지를 샀었는데, 바지를 입고 갔을 때 떨어졌던 곳에 치마를 입고 갈 뻔 불었다.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치마)10cm는 얇으면 엄청 짧아진다. 다리도 절대 벌릴 수 없고. 그렇게 하나까 (전에 떨어졌었는데) 붙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다. 상반기에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고 하반기가 되면 상반기 때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어야하니깐 살을 빼야한다.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이 너 면접이 언제지, 하면서 말을 해준다.

지혜 면접 볼 때 메이크업을 하려면 최소한 새벽 4-5시에 가야한다. 면접 때는 샵들을 24시간을 돌린다. (서류에)먼저 합격한 사람들은 좋은 시간대 예약하지만 뒤에 합격한 사람들은 새벽 3시, 2시에 갈 수밖에 없다.

기징 나는 화장을 해 본 적도 없고, 흔히 여성스럽다고 하는 꾸밈도 해본 적이 없고 여튼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모든 걸 다 이 면접시기에는 다 준비해야 하는 거다. 그것에 대한 부담, 머리를 길러야 하는 것도 있었고 화장을 해본 적도 없으니 한 번에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내가 뒤쳐져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평소엔 화장도 하고 그런 옷도 입고 하는데, 재네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데 나는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면접 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힘들었다.

진혜 안경 하나까 생각하는데 렌즈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눈에 실명 위험을 안고 렌즈 끼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 순간을 위해 렌즈를 깬다는게..하루 종일 끼면 뿌옇고 그런데.

기징 정장을 입으면서 생각했던 게. 정장이 나의 원래 걸음대로 걸을 수가 없고, 저절로 꺾꽂이 앉게 되는 거였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옷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웃음) 너무 몸이 힘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외모에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외모냐 아니냐도 있지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면접을 보는 것조차 힘들겠다, 꼭 장애가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걸러내는 필터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작용한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업무에 필요해?!

지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서빙(항공사)을 할 때 고객한테 가까이 다가 가야 하니 외모 기준이 필요한거라고.. 난 이게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치아랑 피부 정도는 따져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비스 직의 경우 그러 할 수 있으나 과도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지혜 진한 언니는 5급 공무원도 포기하고, 대기업도 포기하고 승무원을 준비했었는데 살을 못 빼서 결국 대기업으로 결국 가더라. 능력은 정말 있는데 외모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 얼굴이 좀 안 되도 진짜 마르면 된다고도 하고, 한국 항공사는 키도 많이 보고 그런다. 사실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리치(팔이 닿는거리)가 중요하다고. 선반에 팔이 닿아야 하니깐. 사실 키가 작아도 팔이 닿을 수도 있다. 사실 외항사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

기징 나는 처음 인턴 넣었을 때 면접을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면접자들보다 대담도 월등히 잘했고 스펙도 결코 뒤지지 않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외모 때문인지 내가 구두를 신고 잘 못 걸었기 때문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항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과도하게 외모를 취업당락의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사무직과 관리직 심지어 연구직도 외모에 관해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영업과 서비스라면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직무기능과는 관련이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피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상담' 이런 곳만 가도 취업 컨설팅과 같은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

지혜 학원에서도 차려입고 오라고 할 때가 있다. 학원에서는 가면 쪽 세워두고 '너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또 얼굴이 좀 안 된다.' 이러면서 따로 불러서 성형외과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아는 언니는 (얼굴을) 다 갈았는데 그래도 안됐다. 그쪽 분야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한 것 같다.

진혜 합숙 면접할 때, 여자 지원자들에게 너네가 남자들처럼 차별화를 가지려면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고.(성형) 이런걸 해서 너네가 남자들처럼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건 너희들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

외모가 취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기징 경쟁심화, 취업이 불안한 상황이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대학만 가면 밀려서라도 대기업 갔다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지금은 취업을 되어야 하고 능력측정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진 거다. 여튼 점수화된 기준들만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지,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기준 같은 게 있다고 여겨지는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돌 취업 하거나 면접 볼 때 분위기나 첫인상을 안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고 안 맞춰지면 잘라버리기 위해서 복장이나 생김새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 같고, 면접관들이 세워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기는 것 같다. 그 사람 만의 개성을 알아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나 외모만을 기준하는 게 문제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진혜 짧은 시간에 사람 평가하는데 첫인상이 평가 기준이 외모로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고 여성지원자한테는 외모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다. 여자를 뽑아서 인재로 키워야지 보다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식으로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고 외모로 많이 평가한다. 기가 너무 세면 회사 내에 동료 서비스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나긋나긋하게 잘할 수 있는가 이 정도를 보는 것 같다.

세리 외모가 능력으로 평가 받는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모 관리가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느껴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많은지 부지런한지 등등의 평가를 하는 것 같다.

피누 취업난이라는 상황이 IMF 이후부터 같은데.. 불황과 취업난이 원인인 것 같고 기업이 부추기고 취업생 겁주는 것. 어차피 사람이 많으니까 이쁜 사람 뽑자는 느낌을 받는다. 스펙의 기준만 높이고 다 비슷한 것 아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격으로 기준만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나 기업의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연지 거창하지만 뿌리깊게 들어온 신자유주의와 자본경쟁체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려다 보니, 다른 건 다 비등비등하니 외모까지 경쟁으로 삼아야 하는 것 같다. 자본경쟁체계가 우리 뿌리 속까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사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

막하 "얼굴이 밥먹여 주는 거라면 왜 밥을 팔아 얼굴을 팔지 이 어리석은 놈아"

은동 "동네 사랑방이 아니라 여긴 회사다. 일이나 해라."

지에 "니가 안 뽑을꺼면 꼬투리 잡지나마"

진혜 "내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보여주기 위해 구두 신고 그런 거 말고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면접을 보고 싶다. 여자가 아닌 나 그대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

세리 "일이나 좀 잘 하자, 신경 고고 그 시간에 일하면 뭐라도 하겠다"

영수 요즘은 외모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시기는 아닌데 뒤에서 대놓고 남자애들이 드럽게 애길 많이 하는 게 '예쁜 신입이 너네 팀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다. 그들에게 "니네 얼굴이나 봐라" 그런 말을 하고 싶다.

피누 "좋은 시절에 취직했다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현재 입사담당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선배들 세대가 손에 쥔 걸 안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내 서비스직은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입술 바르라고, 화장 하라고 그러는데 그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야 이새끼야 넌 담배 냄새 나."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